

한국 전통지리 사상에서의 지역지리 연구방법론의 재조명

박 태 화*

Rethinking Methodology of Regional Geography in the Korean Traditional Geographical Thoughts

Tae-Hwa Park*

요약 : 한국 지역연구의 전통적인 방법론은 지리적 사상이나 사회적 철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시대별로 변화되어 왔다. 고려시대에는 자연의 위대한 힘에 발복을 기원하는 풍수 지리적 사고에 의해서 환경결정론 내지는 환경론적 접근 방법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서는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중앙집권적 왕권이 강화되면서 발간된 많은 관찬 및 사찬지리서는 통치에 필요한 고을의 지리적 사실을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하고, 특정한 속성을 부각시키는 개성 기술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일부 實事求是 및 經世致用的 學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에 의해서 전국을 답사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의 차이를 기록한 지리서들은 과학적 내지는 법칙추구적 계통지리학을 태동시켰다. 여기에는 자연의 영향에 따른 인간심성 형성으로 다양한 사회적 환경까지 창조한다고 보고, 이를 지역기술에 도입함으로써 세계적인 시야에서 볼 때도 앞선 연구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주요어 : 전통지리, 한국지역연구, 풍수지리설, 계통 지리, 조선 시대

Abstract : The traditional methodology of Korean regional studies had been shifted by geographic thoughts and philosophy as follows:

Environmentalism or Environmental determinism stemming from geomancy were dominant methodology in the Korea era. An idiographic approach was introduced based on the encyclopedic description of geographic factors of villages for the centralization of power in the Chosun era. A systematic geography that pursues scientific laws of regional differences which results from the interactions of human and nature had emerged through field works of some practical school in the later Chosun era.

Key Words : traditional methodology, korean regional studies, geomancy, systematic geography, Chosun era

I. 서론

1950년대 이전의 지리학은 지표상의 지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다. 즉 전통지리학은 주로 지역의 지리적인 사실을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하면서 특징적인 개성을 강조한 지역지리이다. 최초의 지리학으로 간주되는 로마시대 스트라보(Strabo, BC 64~AD 20)의 「지리학(Geographica)」,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리서인 「東國輿地勝覽」 등 지역에 대한 기술 그 자체로서 지역지리학의 목적에 크게 부합하는 것이다. 그 후 지역지리는 지역의 고유성에서 출발, 관찰과 기술을 통하여 특정지역 내부의 제 현상간의 기능과 상호관계 등 종합적인 성격을 구명함으로써 그 지역의 고유한 성격을 밝히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트슨(Hartshornme : 1939년)은 지리학이란 지역의 차이를 연구하는 학문이

라고 정의하고, 지표면의 다양한 특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것이 지리학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데서 전통적 지역지리 연구방법론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이후는 지리학의 사조에 나타난 큰 변화는 과학적 방법론의 수용이다. 당시 지역연구의 논리적인 기반이었던 지역주의 방법론을 비난하고, 지리학에서 법칙화, 이론화, 과학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결과 계통 지리적인 연구가 지역지리 연구보다 중시되었고, 지역은 계통 지리적인 연구와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동·서양의 선각자들은 1950년 이전에 지리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서양에서는 현대지리학의 창시자로 추앙 받는 Humboldt(1769 : 1874)의 「우주(Kosmos)」와 Ritter(1779 : 1859)의 「지리학(Die Erdkunde)」, 우리나라에서는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저술한

*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이중환의 「擇里志」는 종래의 사실적 지식을 토대로 하는 정성적·백과사전식 기술학문으로부터 체계적·관계적으로 설명하는 계통학문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에는 극단적인 과학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반동으로 복고적인 지역연구로서의 환원을 주장하고, 지역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지역연구란 계통지리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지역의 전체적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희연·최재현 560). 또 다른 연구는 체계론적 연구방법론인데 지역을 인간의 지구표면 점유로부터 생긴 하나의 복합적인 현상으로 정의하고, 지역지리학의 초점은 시간을 통해서 한 지역을 형성시킨 자연적, 사회적 힘의 명백한 기술에 있다면서 지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다(이재하, 119). 이와 같이 지역연구의 방법론은 시·공간적으로 많이 변천되어 왔다.

II. 한국 전통지리서의 개관

1. 관찬지리서

삼국시대 지리지는 고려시대 편찬되었는데, 集賢殿 太學士, 門下侍中을 지낸 金富軾(1075~1151)의 「三國史記 地理志」(1145년)나, 大禪師를 거쳐 國師가 된 一然(1206~1289)의 「三國遺事 地理志」(1512 재간)이다. 대체로 각 고을의 建置沿革의 변천이고, 약간의 國境, 郵驛, 道路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 지리지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왕명으로 史局을 열어 集賢殿 副提學과 右議政을 지낸 鄭麟趾(1396~1478)가 「高麗史 地理志」를 1451년(문종 1)에 출판하였다. 풍수 지리적인 내용과 疆域, 地名 등이 추가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지리서는 저자의 이름이 명기된 사찬지리서 이기는 하나, 저자의 직책으로 보나, 신라 백제 고구려의 遺事를 수집하여 사용한 점, 중국의 司馬遷 「史記」를 참고하여 편찬한 전국지리서로서(홍시환·박관섭, 177~196) 관찬지리서의 체제로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최초의 지리지는 1424년(세종 6)에 완성된 「慶尙道地理志」이다. 그 후 「新撰八道地理志」 1431년(세종 13), 「世宗實錄地理志」 1454년(단종 2), 「八道地理志」 1477년(성종 8), 「東國輿地勝

覽」 1481년(성종 12) 등이 있고, 중기이후는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중종 25), 「輿地圖書」를 1757~'65년(영조시), 「慶尙道邑誌」 1832년, 1895년 경의 統誌가 출간하였다.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국가 제도가 정비되고,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지방실정의 파악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주도의 전국 지리지 편찬사업이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관찬지리지이다. 그 내용은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의 파악을 목적으로 편찬되었으며, 그래서 임금과 지방관은 지역을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리서가 되었다.

2. 사찬지리서

현존하는 16~17세기 사찬읍지는 경상도 읍지가 가장 많이 남아 있다(양보경, 1983, 51-71). 그 외 전라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읍지가 있다. 영남 南人의 鄭逵(1543~1620)는 1587년 함안에 부임하여 「咸州志」, 안동부사로 부임하여 「永嘉志」의 편찬에도 도움을 주었다. 許穆(1595~1682)은 鄭逵의 문인으로 삼척부사로 부임 「陟州志」, 李垞(1560~1635)은 柳成龍의 문인으로서 상주에서 「商山志」, 선산에서 「一善志」를 편찬하였다. 南冥의 문인 成汝信(1546~1632) 진주의 읍지인 「晉陽志」, 鄭汝昌의 증손 鄭秀民은 함양읍지인 「天嶺誌」를 편찬하였다. 기호 西人의 尹斗壽(1533~1601)는 연안부사로 부임 「延安邑誌」와 그 뒤 「平壤志」를 편찬하였다. 제주목사로 부임한 李元鎮(1630년 문과 급제)의 「耽羅志」가 있다. 그 외 경상도에는 다수의 읍지가 간행되었는데 이는 退溪와 南冥 문인이 중심이 되어 편찬되었다. 사찬지리지는 대체로 지방관의 개인적인 관심과 그 지방과 연고가 있는 저명한 학자들이 함께 편찬된 지리서가 대부분이다. 특히 수령의 빈번한 교체가 지방통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분위기 하에서 그 지방의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도화정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임란직전의 수령의 苛政, 豪民과 猾吏의 발호, 백성의 피폐와 流離, 賦役의 不均衡 등 정치·경제·사회적 문란에 대한 新進士林들의 개혁정치의 이념이 결합되어 사찬읍지를 편찬하는 배경이 되었다.

3. 실학자의 지리서

1) 유형원의 군현제 : 磻溪 柳鏞遠(1622~1673) 본관은 文化로 경기도 竹山이 고향으로 짐작된다. 한양 외가에서 출생하여 스승은 외숙 李元鑣(星湖 당숙)과 고모부 金世濂(판서)이고, 번번이 과거에 실패하여 관직은 없이(進士), 전국을 두루 여행하면서 지역체계의 불합리성을 통찰하였고, 여러 가지 지역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그 후 전라도 扶安 우반동에 은거하여 「東國輿地志」, 「郡縣制」 저술에만 전념하였다(양보경, 1992). 우리나라 실학의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개혁가요 사회사상가인 유형원에 의해 저술된 군현제는 서민 생활에 불편함을 기반을 두고 道와 郡縣의 단위에 비판을 가하고, 교통과 군사체계의 개편, 토지이용의 다양화와 상업적 농업을 중시하였던 경제지리적 고찰 등 지리적 관점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30대 초반까지 임진·병자 양란을 겪은 후의 목도한 사회현실과 지역적 현상들, 유람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은 그의 학문의 범위와 방법을 넓혔다.

2) 이증환의 택리지 : 淸潭 李重煥(1690~1756)은 본관은 驪州로서 星湖 李瀼의 再從孫으로 충남 연기군이 고향으로 짐작된다(이문종 26). 김천도 찰방, 병조좌랑 지냈으며, 노론이 소론을 무고한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37세 파직되어 30여 년 간 방랑 생활을 통하여 평안도와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을 답사한 후, 충남 江景 부근의 黃山村에 은거하면서 「擇里志」를 저술하였다. 卜居總論에서 살기 좋은 땅을 가리는데 있어서 이상적인 구비조건으로서 地理·生理·人心·山水를 들고, 그 상호관계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이론을 전개하였다. 택리지는 전권을 통해 사색당파의 계보와 당파싸움에 관한 내용이 은연중에 많이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저자는 西人に 밀려난 南人이면서도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대로 논평한 점으로 보아 높이 평가된다. 그래서 택리지는 최초의 한국적인 문지리서로서(최영준, 62) 지리와 인간생활의 상호관계를 구명한 과학적인 지리서로서 세계적 시야에서 보더라도 지리학상 가장 선구적인 저술이다(노도양 역).

3) 정약용의 강역고 : 茶山 丁若鏞(1762~1836)은 본관은 押海로서 경기도 광주 출신이고, 부친은 정재원은 여러 고을의 원남을 역임한 명관이며, 모친은 海南 윤씨로서 고산 윤선도의 후손이다. 정약용은 조선후기의 실학의 집대성 자로 동향인 李瀼(1681~1763)의 학파이다(이익성 편역). 그는 흥문관 修撰으로 있을 때 왕명을 받아 수원성을 설계하였다. 정조가 죽자 신유사옥에 관련되어 숙청되자 경상도 장기,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어 18년간 고생하면서 「與猶堂全書」, 「我邦疆域考」, 「牧民心書」 등 많은 저서를 완성하였다. 茶山의 사상은 實事求是로 공허한 생각이나 말을 일삼기 보다 현실에 입각해서 거기서 진리를 찾아내야 의의가 있다는 사상으로 18세기 經世致用論의 대가 星湖 李瀼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 淸國을 통해 들어온 천문, 역법, 지리, 지도, 의학, 망원경 등의 서양문물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 듯하다. 그래서 다산은 지리 관계의 저술을 하였는데 그 주목할 이유는(임덕순, 1987 2-15) 첫째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 地理考證에 심취했고, 둘째 지리학을 厚生國富 추구 및 反空理主義 측면에서 중요시했고, 셋째 농업사회에서 産物의 출처인 그 땅이나 지리를 실학자로서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 지리서 저술배경은 주자학에서 출발하여 이론과 실천을 강조하는 학문의 단계를 거쳐서 실학이 등장한 결과이다. 주자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이론에만 몰두하여 실생활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공리공론적인 학문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명종 19년 義를 주장하는 南冥과 仁을 숭상하는 退溪의 왕복서한에서, 남명이 <근자에 공부하는 사람을 보건대, 손으로 물 뿌리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하늘의 理를 말하여, 이름을 도둑질 해 남을 속이려 하다가, 도리어 남을 중상하는바 되고, 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칩니다. 아마도 선생 같은 장로께서 꾸짖어 그만두게 하시지 않는 까닭인지요> 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배경은 남명의 『敬』 『義』 사상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敬은 안으로 마음을 밝히고, 義는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이다(周月琴, 김덕환 역 63). 그 예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의 제자들이(松菴 金沔, 來庵 鄭仁弘, 忘憂堂 郭再祐) 조직적인 의병활동

등을 시작한 것도 남명의 실천사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남명의 이론과 실천의 합일을 주장하는 陸王學은 중국에서 程朱學에 대한 王陽明의 知行合一說과 유사하다(오이환 19, 이동환 1-10). 즉 조선시대 사상사의 흐름에서 성리학의 실천의 중간에 知行合一의 실천단계를 인정할 수 있다. 청나라의 고증학과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되자, 17세기 이후 실학이 등장하였다. 서양의 학문과 사상으로 싹트기 시작한 실학파의 학풍은 사회개혁, 자아인식을 주장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역사나 지리를 연구하고, 우리 문화를 밝히고 고증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시기에 다수의 학자들이 지리학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은 전란기의 인구이동과 그 후의 상업활동을 통하여 많은 양의 지리적 정보가 축적되었으며, 전란 직후 우리민족의 애국심이 강해졌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애국심은 국토의 자연환경, 자원의 분포, 교통사정, 인구나 취락, 주요 관방 등에 관한 국토의 연구로 승화되었다. 특히 지역연구는 종합적으로 서술한 地誌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역사지리, 경제지리, 정치지리 등 계통지리에도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다(최영준, 60). 그래서 군현제, 택리지, 아방강역고 이외에도 韓百謙의 「東國地理誌」, 安鼎福의 「東史綱目的 地理志」, 申景濬의 「疆域考」, 「道路考」, 「山水經」, 李青翊의 「然黎室記述의 地理典故」, 崔漢綺의 「地球典故」 등이 있다. 이들 지역연구의 저술은 지역의 제 현상에 대하여 인간생활과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구명하려는 방법이 나타나있다.

III. 전통지리서의 지역연구 방법론

1. 환경론적 접근

1) 풍수지리 설명 : 풍수지리설은 통일신라 이후부터 우리민족의 기층적 사상체계를 이룬 수많은 사상들 중의 하나이다. 고려 태조는 訓要十條에서 <금강 이남은 산형이 背逆이니 인심도 역시 그러할 것인즉 이 지방 인물을 조정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하였다>(최창조, 49). 그 후 국도입지와 특수한 취락입지에도 풍수적 논리가 확대 적용되어 조선시대 초기 尊都 및 主山(또는 主山の 裨補) 등과

관계된 풍수론은 고려조보다 심화되었다(최원석 51, 성동환 2). 또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에도 각 읍지에는 鎮山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유신들 사이에서 풍수론이 강력히 배척되어, 풍수설은 민간신앙화 하여 葬墓에 치중하는 술법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조선중기 이증환은 풍수지리학적 측면에서 可居地를 구하였다. 卜居總論에서 산의 형체는 <무릇 반드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야 큰 힘이 있다.> 이러한 예는 '한양의 三角山, 진잠의 鷄龍山이 이에 속한다'. 하였다. 조선후기 정약용은 여유당전서 風水論에서 <丁子(정약용 자칭)는 그 어버이를 묻어서 福을 구하는 것은 효자의 正이 아니다.> 또 <지금도 많은 풍수들은 모두 종신토록 빌어먹을 뿐이고 그 자손도 창성치 못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치인가> 라고 하여 부정하였다.

한국풍수사상의 현대지리학적 의의로 첫째 환경론적 의의를 들고 있다.(이몽일 55-71) 이는 신라 말부터 고려시대의 풍수지리설은 입지적 원리에서 인간생활은 자연의 절대적인 힘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상이다. 즉 한국인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특히 서양의 環境決定論에 비교될 수 있는 사상이기도 하다(윤홍기, 347). 더욱이 헤터너(Hettner)의 지리학의 관심사는 장소에 따라 상이한 지표면의 현상에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구표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엘킨(Elkins)은 자연현상과 인문현상과의 인과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환경결정론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이재하 117). 그러나 풍수가 흙이 있는 땅을 보살피고 치료하여 보완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風水裨補이고, 그 흙결처에 사찰을 세워 보호하면 비보사찰이다. 또 조선조 國初 정승 河崙이 도선의 裨補術을 써서 崇禮門 밖에 못을 파고 崇仁門 안에 산을 만들었다고 한다(최원석, 52). 즉 인간의 힘에 의하여 땅의 흙을 치료할 수 있는 血脈法 혹은 醫地法이 있다면(성동환 68-69) 이는 인간이 지리적 환경형성에 영향력을 능동적으로 행사한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풍수비보 사상을 환경결정론이라 할 수 있겠나? 어쩌든 학자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풍수사상은 시대적 전개양상과, 공간적 특성 등에

서 보면 많이 변용 되었다. 조선중기 이증환은 풍수지리설의 인용마다 무릇(所爲)이라는 토를 달아 표현하였고, 정약용은 풍수지리설을 통렬히 배척하였다. 그러나 풍수지리에 담겨진 환경결정론적 사상은 전통적 지역지리의 연구방법으로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자연-인간 관계설명 : 지역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누적된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에 삶을 영위하는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인지하고, 이러한 인지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 경산현에는 '土肥墾相半 風氣暖'의 기록은 농업에서 자연 지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形勝條는 산, 강, 들의 경관의 설명인데, 즉 자연은 농사, 교통 등의 生理와 관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의령 현은 '蒼江大野' 푸른 강과 큰 들이라 하였다. 진주 목은 '嶺南第一(큰 메와 큰 강)이다.' 또 '동방의 陸海이다. 水産과 土産으로서 해마다 나라에 貢바치는 것이 영남 여러 주의 반이다.' 유형원은 군현제에서 <하늘이 씨를 내리고 땅이 만물을 길러 만물이 발생하니, 높고 건조한 곳에 적합한 것도 있고, 남쪽과 북쪽에 적합한 것도 또한 각각 그 물산의 구별이 있다.> 라고 하였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 農策에서 농사란 <天時(기온과 강수에 따르고, 地理(토질)를 분간하고, 人力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 설명은 인간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나, 결국에는 자연환경의 혜택이 많은 곳은 인간생활이 유족하고, 그렇지 못하면 곤궁할 수밖에 없는 환경관 내지는 자연관으로 볼 수 있다(황정선·이혜은, 73-88).

더욱이 자연환경은 인간의 심성까지도 지배하여 인격형성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생활에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증환의 八道總論에서 <무릇 산수라는 것은 정신을 기쁘게 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하는 것이다.> 즉 함경도는 <산천이 험악하고 풍속이 굳세고 사납고, 토지가 차고 메달라 곡식이라고는 오직 조와 보리뿐이다.> 라고 하였다. 심지어 자연환경이 인재배출에 영향을 인정하여 팔도의 인심과 사색당파의 계보까지 밝히려고 하였다. 山水總論에서 옛사람이 우리나라를

<…… 천리나 되는 水源과 백리나 되는 들이 없는 까닭으로 큰 사람이 나지 못한다.> 또 <상주 남쪽에 선산이 있는데, 상주에 비해 더욱 맑고 밝으며 뛰어났으므로 속담에 조선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인재의 반은 선산에 있다>고 하였다. 역시 무릇, 옛사람, 속담에 등 토를 달기는 하였으나 자연의 영향이 큰 환경론을 시사하고 있다. 정약용도 역시 東胡論에서 <풍토와 기후에 따라서 타고난 기질의 성품에 크게 다른 것이 있다.> 고 하여 이증환의 환경론적 사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려조에 환경의 영향이 운명적으로 인간생활을 지배하는 견해에서 발전하여 조선조에서는 인간도 유기체로서 환경에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도 인간과 환경을 중심으로 그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전통지리의 지역연구에서는 자연환경을 우위에 두고, 인간은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역연구의 방법론을 구하였다. 무엇보다 자연환경을 삶을 위한 경제환경의 기반으로 생각하였으며, 더욱이 인간의 심성 형성에도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환경을 창조한다고 믿고 있다, 최근 신 지역연구의 탄생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회환경의 인식은 지역연구에서 인간, 사회, 자연간의 3자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조선시대 지리학자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연과 인간 관계론에서 환경이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環境決定論에서는 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環境可能論에는 미치지 못하고, 환경 우위 내지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環境論의 관점에서 지역 특성을 파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권정화, 82-83).

2. 개성-기술적 접근

1) 지역차 설명 : 대체로 조선시대 地理誌의 지역 기술에는 위치, 규모, 산물과 관계하여 기술하였다. 첫째 위치와 관계하여 한양과의 거리, 인접하고 있는 동서남북의 고을까지 거리,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인의 전통적 지리관인 중앙(한양)-방위(전후좌우)관에서 표출된 것으로 보여진다(임

덕순, 1999, 5-14). 둘째 규모와 관계하여 인구·군정·성씨의 수, 속현, 고을의 관동 등 大小(인구, 면적, 거리)-上下(관동, 속방)의 관념은 지역의 기반이 된다. 셋째 산물은 토산물이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산출지역이 민간수요의 증가, 貢賦의 강화, 재배기술의 보급, 중국 무역의 확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확대되었다(이금삼, 13). 초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墾田, 土宜, 土貢이 있고, 중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田結은 없고, 土產만 기록되어 있다. 특히 언양현 토산 조에는 '참외는 매년 겨울철에 심었다가 4월 그믐 전에 임근게 진상해 들이는데, 그 심고 기르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성종 초에 없애 버렸다.' 하는 기록은 남쪽 따뜻한 기후에서 시설재배를 했던 지역의 특이성을 나타내었다. 후기 여지도서에는 物產의 畠田, 水田, 進貢, 田稅를 기재하여 지역 차를 명백히 하였다. 즉 경상도 장기 현의 물산은 '너룩(도료), 광어, 해삼, 상어, 대구, 방어, 송어, 청어, 전복, 홍합, 미역, 김, 물개, 송이, 마황, 정분, 방풍' 등이 있다. 봉화 현에는 '잣, 석이, 인삼, 수달, 산무에뻬, 석청, 송이, 은어'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공통의 산물인 송이를 제외하고, 장기 현은 해산물, 봉화 현은 산 채취 물이 다수여서 지역 차를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한편 사찬읍지의 편찬체제를 보면 대체로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며, 학맥상으로 연결관계를 가지면서 상호영향 하에 편찬되었다. 경상도지방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함주지는 勝覽에는 없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各里, 戶口, 田結, 堤堰, 灌溉, 軍器 등의 조목이다. 그 예로 各里條에는 里의 사경, 屬邦의 수와 이름, 토지의 肥瘠, 居民의 신분, 풍속이 기재되어 있다. 그 외 壇廟, 任官, 流配, 善行, 文科 등의 항목이 신설되었다. 그것은 당시에 安民의 요체가 되는 均賦役을 실시하고, 지방의 풍속을 교화하고, 명분을 바로 잡는 것이었다. 서북지방에서 먼저 편찬된 연안읍지는 함주지에 비해 軍摠, 倉庫, 進上, 官屬 등이 부가 기록되어 지역의 군사적으로 중요 지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2) 유학-인간 관계 설명 : 조선왕조 500년은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그래서 조선초기 읍지에 인물, 예속, 시문 등의 내용으로 지역의 차이

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 조선중기 읍지에는 兩亂후 피폐한 민심을 수습하고, 인물이나 충효를 강조하여 王威의 顯揚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은 또한 성리학적 이념으로 주민을 교화하고, 향촌통제 수단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경상도속찬지리지(1469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데, 대구도호부에 旌表門閭條에 고을에 효자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그 후 동국여지승람에는 풍속, 학교, 인물, 효자, 열여 조가 있어 유학의 이상 구현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즉 진주 목의 풍속 조에는 습속이 詩書를 숭상하고, 부유하고 화려함을 숭상한다고 하였다. 전주부 古蹟條 孝子리는 이규보의 시에 <동을 세워 효자를 표하였는데, 성씨를 아니 새겼네, 어느 때 사람이며 효행은 어떠하였는고>라 하였다. 나주목 惟憂條에서 鄭道傳은 北元의 사신을 영접하면서 말하기를 <내 마땅히 복원 사신의 머리를 배어 가지고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를 결박해다가 명나라로 보내겠소> 했다. 또 안동대도호부 人物條에서 權幸은 건원이 신라에 쳐들어와 왕을 시해하고 왕비를 간음하거늘 <건원은 사람의 도리로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다. ……> 하면서 孝, 忠, 節義의 고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산천, 궁실, 성곽, 누정의 경관을 설명하면서 巨儒가 보고, 느낀 시문을 인용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상주 목의 山川條에서 낙동강 설명은 이규보의 시에서 <백번이나 구부러진 푸른산속에, 한가하게 행하여 낙동을 지난다. ……> 합천군 산천조 가야산 설명은 최치원이 <鷄林의 누런 잎사귀, 鶴嶺의 푸른 솔이다.> 이색의 시에 <가야산이 가장 기절하니 千載에 孤雲은 짝할 이 없네 ……> 택리지 팔도총론에도 고려시대 시인 金黃元이 평양의 練光亭에 올라가 <평양 성을 끼고 흐르는 강물 아 넓기도 하여라, 강 건너 멀리 보이는 점찍은 듯한 산 산 산……> 등은 우리나라의 강과 산의 경관 차를 시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개성부상 宮室條 壽昌宮은 許琛의 시에 <…… 무정한 새들은 珠欄의 새벽에 지저귀고, 눈에 아득한 이끼는 玉座의 봄에 아롱졌네, 전조의 옛 늙은이와 이야기 말라 ……> 라고 하여 개경의 무상함을 표현하였다. 경주부 古蹟條 鮑石亭은 李仁老의 시에 <…… 쇠잔한 달빛이 依依하게 옛성을 비추네, 당시의 管

絃소리 마침내 처량했고, 황금물 술잔은 등등 떠서 굽이 따라 흘렀으리 ……」 하여 신라 멸망의 현장을 시로 나타내었다. 밀양도호부 樓亭條 嶺南樓는 수많은 시인이 아름다움을 읊는데 그 중 일본인 龍章의 시에 <등립하니 음악이 鈞天인가 황홀한데, 춤추는 소매 앞에 이야기 끝을 끊임없이 있네, 맑은 안개는 멀리 산 마을 밖에 건히고 ……」 라 하여 밀양의 아름다운 경관을 영남루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이러한 巨儒들의 시를 인용한 것은 天地의 자연과 인간의 윤리·도덕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시대의 철학적 사상 내지는 자연관에서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개성기술적 지리학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가 독립되지 않고, 더욱이 역사 내용까지 혼재되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군현이라는 소지역의 지표현상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개개 지역의 정체성 내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소지역의 종합으로서 전국적인 지리서를 기술하는 방법론을 택하였다. 이것은 상세한 지역연구로부터 일반연구와 비교연구의 종합이 가능하며, 종합을 통해서만 다양한 요인의 인과관계가 파악될 수 있다고 보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로서 지역의 이해는 부분들에 인식과는 별도로 존재하며, 따라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누적되는 것으로는 전체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정한다면(권정화, 82) 어느 정도 조선시대 국가단위의 즉 전국지리서가 종합적인 지역성격은 너무 많은 요소로서 복잡하고, 이를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실학자들에 의한 계통 지리적 접근방법이 태동될 수밖에 없었다.

3. 계통 지리적 접근의 태동

1) 상호관계의 비교 방법: 근대지리학은 지표 위에 전개되는 지리적 제 현상을 지역적으로 상호 비교하고, 지역내외에서 공간적 상호관계의 의존성 아래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파악하는데서 地誌의 방법론을 개척하였다. 유형원은 군현제에서 <工商이 있어야 함은 土農과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지역의 農·商·工의 상호관계 의존성을 구명하려는 경제 지리적 안목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중환의 복거총론에서 <…… 이런 법(교역)이 없으면 재화가 생겨날 수 없다. 그러나 말은 수레만 못하고, 수레는 배만 못하다.> 즉 ‘한양, 개성, 평양, 안주는 연정에 통하는 길에 있어서 거부가 많다.’ 라고 하여 지역 간에 교통과 국가 간에 교역의 중요성을 통찰하고 있다. 또 <땅이 기름지다 함은 눈에 버 한말을 심어서 60斗를 추수할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고, 다음은 4·50斗를 추수할 수 있는 곳이며, 30斗이하 밖에 추수할 수 없는 곳은 토박하여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다.> 라고 하여 농업의 분석에 계량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 通塞議에서 <은 나라 인재를 다 뽑아 올려도 오히려 부족할 가 염려인데 하물며 그 열 가운데 여덟·아홉은 버리는 것입니까? 평안도 함경도 사람도 버린 자요, 황해도, 개성, 강화 사람도 버린 자요, 강원도, 전라도 사람도 반쯤 버린 자라고> 하여 인재 등용의 지역적 차이를 비교하여 사회지리에 접근하는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應旨論農政疏에서 <농사가 다른 것보다 못한 것이 셋이 있는데 그것은 높기는 土보다 못하고,利함은 장사보다 못하고, 편하기는 工匠보다 못하다 하였다.> 농업이 다른 산업과 상관하여 불리한 문제점을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비판-개선 방법…조선중기 이후 실학자들은 우리 국토의 역사와 疆界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양란 후에 지역방어, 인구변동, 행정구역 등을 연구하여 역사, 국방, 정치, 교통에 관한 합리적인 제안(개혁)을 한 지리서를 저술하였다. 유형원의 군현제에서(양보경, 40-52) <우리나라의 면적은 좁은데 郡縣의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한 고을의 땅은 사방으로 50리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충청도 군현 개편안을 실제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또 군현의 방어를 위하여 읍성, 도로, 역원 체제의 재편을 주장하였다. 이 중환은 팔도총론에서 세종조부터 <대마도는 원래 倭國에 속하지 않고, 두 나라 사이에 있어서 왜국을 빙자하여 我國에 요구하고, 또는 아국을 빙자하여 왜국에 중하게 보여, 박취 구실을 하여 스스로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특별하여 복종하는 것이 상책이라 하였다.> 정약용의(임덕순, 1-16, 정혜렴 역주) 아방강역고 八道沿革總叙 上 머릿글에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지리

지, 정인지 고려사 지리지에 나오는 팔도총서는 모두 잘못되었고, 영성하다> 라고 하고, 바로잡아 서술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역사서의 고증을 통하여 수행한 귀중한 역사지리서라 할 수 있다. 여유당전서 廢四郡論에서 <어떤 사람은 이 네 고을(茂昌·閔延·虞芮·慈城)을 없앤 것이 당연하다 어떤 사람은 복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여 의논이 한결 같지 않다.>에서 압록강의 흐름을 지리적, 군사적인 설명을 곁들여 溟水 이북이 조선 소유로 되지 않을 것을 염려 4군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인가? 이는 국가의 疆域과 국방에 대한 깊은 분석으로 정치지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서양의 천문, 지리, 지도, 의학 등 문물이 전래되고, 과학적 사고가 팽배하자 실학자들은 지리학도 전문화하여 인문과 자연으로 분리하여 보게 되었다. 당시 서양에서 많은 지리학자들이 역사학에 많은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질학·지구물리학·생물학 분야에 탁월한 학문의 소양을 쌓았다(손명철, 84). 이러한 계통지리학은 공간적인 법칙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이 주도하였다. 그래서 당시의 조선시대 실학자들도 현실에 입각해서 생활과 관련된 지리학을 찾게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생활에서 미치는 자연환경, 인문환경으로 세분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분석방법으로는 계량적인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국을 답사하면서 산업생산과 관련된 토양과 기후 조건, 농·상·공업 균형율 이룬 경제, 유통과 관련된 교통기관, 강역과 경계의 변천, 행정구역의 조정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과 더불어 연구 분석된 개선(개혁)안을 내어놓았다.

IV. 결론

지역연구의 방법론은 그 당시의 사회적 철학 내지는 지리사상에서 비롯되었고, 또 지역의 시간적·공간적 변천과 더불어 방법론도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연구의 전통적인 방법론은 대체로 지역의 개개 속성을 파악하는데 머물러 있었으며 이들의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종합적인 속성에 의하여 지역을 구명하는데는 미흡하였다. 그러나 그

시대의 세계 지역연구의 흐름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방법론을 구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자연의 보호와 그 위대한 힘에 發福을 기원하는 풍수 지리적 사고로서 자연은 적극적, 인간은 수동적으로 작용하는 환경결정론으로 보았다. 성리학이 지배하는 조선조에도 풍수 지리적 사상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인간생활에서 자연의 영향을 우위에 두고 있는 환경론적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서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중앙집권적 왕권이 강화되면서 통치에 필요한 자연과 인문을 포함하는 지리적 지식이 요구되었다. 모든 고을의 지리적 사실을 백과사전 식으로 나열한 관찬지리서나, 사찬지리서를 편찬하였는데, 이들 지리서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지리관인 中央(한양), 方位(좌우전후), 大小(수, 면적, 거리), 上下(관등) 등은 물론 특히 고을의 토산물 기록하여 지리적 사상의 종류와 수량의 다양성에 의해 지역의 특성을 구명하였다. 또 유교적 禮俗과 巨儒의 시문의 인용으로 고을의 자연과 인문의 경관을 설명하는 인간의 思惟에 의하여 지역의 특정한 속성을 부각시키려는 등 개성 기술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조선중기 이후 청의 고종학과 서양의 문물이 도입되면서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인 성리학을 대신하여 실학이 등장하면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인간 상관에 의한 지역차 배경의 과학적 구명, 더 나아가 지역 간에 개별 속성(요소)을 비교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또 제 현상 각각에 대하여 그 원리와 작용을 구명하는 계통 지리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을 추구한 학자들은 전국을 두루 여행한 후 지역적 차이를 목도한 후, 지방에 은거하면서(土禍의 영향) 영토와 방위, 관방, 교통과 상업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합리적인 개선(개혁)안을 제시하는 實事求是 및 經世致用的 學을 주장하는 학자이다.

이상 조선초기 까지는 지리서는 중국의 「史記」의 체제를 참고로 하였고, 통치자료를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전통적 지역연구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개념적 기반과 방법에 대한 표준모형

부재의 문제점(이희연·최재현 561)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실학자의 지리서는 전국을 답사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의 차이를 과학적이고, 법칙추구적 고찰을 한 계통지리서이다. 더욱이 자연의 영향에 따른 인간 심성 형성으로 다양한 사회적 환경까지 창조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신 지역연구에서 지역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사회를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지리연구를 사회 및 과학적 시각에서 본 것이다. 즉 조선후기의 실학자의 지리서는 지역기술에서 이러한 사회이론까지 도입함으로써 세계사적 시야에서 볼 때도 가장 앞선 지역지리 연구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文 獻

- 권정화, 2001, “부분과 전체 : 근대지역지리 방법론의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 성동환, 1999, 羅末麗初 禪宗系列 사찰의 입지 연구 -九山禪門의 풍수적 해석-,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명철, 1995, “프랑스에서의 地域地理연구에 대한 一考察”,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창간호.
- 양보경, 1983, “16-17세기 읍지의 편찬배경과 그 성격”, 지리학, 27.
- 양보경, 1992, “반계 유형원의 지리사상 -동국여지와 균현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4.
- 오이환, 2000, “南冥과 陸王學 -知와 行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논총, 8.
- 윤흥기, 2001,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대한지리학회지, 36/4.
- 이금삼, 1986, 조선시대에 있어서 영남지방의 토산물 분포와 그 변동, 경북대학교 대학원.
- 이동환, 1999, “남명·퇴계 양 학파의 사상 특성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제기”, 남명학연구,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9.
- 이몽일, 1988, “한국풍수사상의 현대지리학적 의의와 과제” 地理學論究, 9.
- 이문종, 2001, “「擇里志」로 본 忠淸道”, 문화역사지리, 13/2.
- 이상필, 1999, “남명학파의 남명사상 계승양상”, 남명학연구,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9.
- 이수건, 1999, “退溪과 南冥의 역사적 위상” 퇴계와 남명의 사상적 특성, 퇴계연구소 16차 학술회의.
- 이원순, 1992, “최한기의 세계지리 인식의 역사성, -惠岡學의 지리학적 측면-”, 문화역사지리, 4.
- 이익성 편역, 1992, 실학사상독본 9 -정약용-, 한길사.
- 이재하, 1997, “세계화시대에 적절한 지역연구의 방법론의 모색”, 지역지리학회지, 3/1.
- 이중환(노도양 역), 1987, 택리지, 신명출판사.
- 이희연·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 임덕순, 1987, “다산 정약용의 지리론 연구”, 지리학 논총, 14.
- 임덕순, 1999, “韓國人의 傳統的 地理觀”, 문화역사지리, 11.
- 정약용(정해림 역주), 2001, 아방강역고, 현실실학사.
- 周月琴, 김덕환 역, 2000, “南冥哲學과 性理學의 사상적 관계” 남명학연구론총, 8.
- 최영준, 1992, “조선후기 지리학 발달의 배경과 연구전통”, 문화역사지리, 4.
- 최원석, 2001, “영남지방 裨補의 根源과 擴散에 관한 一考察”,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 최창조, 1991,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 홍시환·박관섭, 1977, 지리학사, 대왕사.
- 황정선·이혜은, 1992, 택리지에 나타난 자연관, 지리학연구, 20.

(2002년 3월 10일 접수)